교정에 녹색 숲…도심녹화·자연교육 '일석이조'

광주시 '학교 숲 조성' 학생·학부모·인근 주민 호응

2010년부터 20개교에…올 3억 들여 6개교에 조성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는 대로변에 위치한 탓에 소음은 물론 매연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려왔다. 학부모들로부터 숲 등 녹지공간이 부족해 삭막하다는 지적까지 받으면서 학교의 고민도 깊어졌다.

학교 측은 학부모, 학생 등과 논의 끝에 학교 숲 조성 사업에 도전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지난해 광주시의 학교 숲 조성 학교로 선정됐다. 효덕초교는 우선 건물 사이에 있는 인조잔디를 과감히 걷어냈다. 그 자리에 다양한 꽃과 나무를 심었다. 또 교내 자투리땅엔 감자 등을 심을 수 있는 텃밭을 만들었다. 요즘 이 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텃밭에서 수확한 농작물로 샐러드 만들기와 감자·완두콩 쪄서 나눠먹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한때 삭막한 학교였던 효덕초교는 최근 산림청이 주관하는 학교숲 조성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영예까지 안았다.

광주시가 학교교정 곳곳에 녹색 옷을 입히는 '학교 숲' 조성사업을 전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년 여름 되풀이되는 도심 열 섬 현상 등을 막고,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자연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동구 서석초교와 서구 송학초교, 남구 대성초교, 북구 동신고, 광산구 송정중앙초교, 첨단중 등 6개 학교에 숲을 조성한다. 학교당 5000만 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씩이 지원되며, 교내 공간에 나무와 꽃을 심고 산책로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총 20개 학교에 학교 숲을 조성해 도심녹화는 물론 학생들에게 자연체험 학습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후변화대응과를 만들 정도로 기후환경 개선에 선도적인 광주시는 학교 숲 조성 사업도 적극적이다.

시는 도심 내 모든 학교에 숲을 조성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도심 열 섬 현상까지도 일부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지난 2010년 7.3일이던 광주의 열대야 일수가 2040년 13.2일, 2100년 61.3일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도심 녹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 도시녹화 담당은 "학교 내 숲 조성사업은 학생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광주에 있는 모든 초·중·고교에 숲을 만들어 광주의 녹지율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남구 효덕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내에 조성된 '학교 숲'을 거닐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해 산림청이 주관하는 학교숲 조성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광주시 제공〉

아이 낳기 좋은 직장 추천해 주세요

광주시·보건복지부 24일까지…선정땐 훈·포장

광주시와 보건복지부는 "제3회 인구의 날(7월11일)을 기념해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직장과 자치단체 등 아이 낳기 좋은 직장 추천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추천 대상은 직장,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며, 오는 24일까지 추천서와 직장 내 자체평가서를 해당 자치구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접수된 추천기관을 선별해 5월 9일까지 '인구의 날' 홈페이지(http : //711.ppfk.or.kr)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천 내용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책)운영 등 특정 사업에 대한 노력과 성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직원 지원 실적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직장보육시설 연계 활성화,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남성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률 등 출산 친화제도 등이다. 수상 단체에는 훈장과 포장 및 대통령 표창 등이 수여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 37곳 지도 점검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노인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사업 수행 기관 37곳에 대해 자치구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노인복지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며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실적, 사업관리 노력도, 제반 절자 이행 여부 등 사업수행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노인 일자리사업에 171억원을 투입, 9500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최태조 광주시 노인정책담당은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은 점검으로 중앙부처의 전국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내년 사업비도 더 많이 확보돼 어르신의 일자리 사업도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월동 현대아파트·지산동 무등파크호텔 인근

도심 급경사지 4곳 장마전까지 정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급경사지 4곳에 5억여원을 투입해 장마 전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남구 주월동 현대아파트 뒤편 급경사지와 지산동 무등파크호텔 옆, 소태동 대명아파트, 동림동 유일가든아파트 주변 등 4곳이다.

주월지구 급경사지는 위험등급 D등급으로 긴급 정비가 요구되며, 나머지 3곳도 C등급으로 평소 재해발생 우려가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광주시는 해당 지역에 어스 앵커(비탈면 보강 공법)를 설치하는 등 비탈면과 배수로를 정비하고 낙석 방지책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정학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토목3과장은 "우기 전에 공사를 조기 완료해 급경사지 인근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마때 수해피해가 없도록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정비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3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 위험지역 3곳을 우선 정비했으며, 2015년까지 나머지 D등급 급경사지(1곳)의 정비도 완료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

임대아파트 어르신들을 위한 한마음 잔치

광주도시公 500명 초청

판소리 공연에 의료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홍기남)는 14일 금호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한마음 잔치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주민 500여명을 초청해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이어서 창작 국악단 도드리에서 판소리, 민요, 가곡 등 공연을 펼쳐 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본 행사 외 손맛사지, 네일아트, 헬륨풍선 등 각종 이벤트 개최와 건강이 안 좋은 어르신들에게 당뇨검사, 혈압체크 등 간단한 의료봉사를 실시해 도움을 주었다.

도시공사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22일 하남영구임대아파트, 30일에는 금호영구임대아파트에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도시공사 홍기남 사장은 "이번 행사를 추진할 수 있게 도움을 준 대한적십자사와 도드리 국악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행사가 2차례 남아있는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247곳 어린이 안전지도 만든다

광주시, 초등학교 주변 등 CCTV도 180대 설치

광주시가 어린이 범죄 위험지역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환경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14일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범죄 취약지역 90곳에 14억원을 들여 CCTV 180대를 설치하고, 오는 9월까지 초등학교 주변 위험지역 247곳에 안전지도를 제작, 감시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1억3천여만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놀이터 234곳에 CCTV 528대를 설치한 상태다. CCTV 설치는 자치구간 형평성, 범죄발생 빈도, 주변 CCTV 설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있다.

시는 또 초등학교 주변의 위험·안전 환경을 조사해 지도화한 아동안전지도사업을 지난 3월부터 45개교에서 실시중이다.

김혜영 광주시 가족복지담당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게 목표"라면서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 학교 등과 협의해 현장에 꼭 필요한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2년 연속 전국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은선)이 2년 연속 전국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14일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지난 10일 개최된 '수인성·식품매개질환 실험실감시사업' 통합 워크숍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성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집단식중독원인균 등을 다양하게 분리해 수인성 감염병 원인체 규명률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